

완도군, 해양치유산업 워크숍 개최

사업 이해도 높여 원활한 업무 추진 목표 해당 사업 성공시 지역 경제 활성화 될 것

완도군은 지난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군청 대회의실에서 해양치유담당관 부서 전 직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1월 인사 개편에 따라 담당 부서 전 직원이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팀 및 직원 간 원활한 협업 추진을 목표로 마련됐다.

워크숍은 해양치유산업과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 관련 교수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됐다.

이날 해양치유산업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의 7개 단위 과제에 대해 강의의 식이 아닌 질의응답, 토론 방식으로 진행하여 실무자들이 앞으로 업

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군은 2017년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자체로 지정된 후, 지난해를 '해양치유산업 원년' 선포하는 등 해양치유산업과 함께 해양바이오, 해양관광 산업을 미래 3대 전략 산업으로 정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은 중앙부처-전남도-완도군 간 협약을 체결하여 총 18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3년간 정부와 도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사업으로 ▲해양치유 바이오 연구단지 조성, ▲해양기후치유센터 건립, ▲해양치유공원 조성, ▲해양문화치유센터 건립, ▲해양치유 지



역 역량강화 사업 등이 추진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도 워크숍에 참여하여 "해양치유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우리 지역에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소득 창출을 이뤄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며 "해양치유 자원 연구와 각

종 콘텐츠 개발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이번 워크숍 이외에도 투자 유력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해양치유산업의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원도=김광수 기자

강진군 종합운동장 농구장 코트 보수

강진 농구 동호인 여가활동 증진 기여

강진군이 지난 21일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농구장 바닥면과 농구대를 보수 완료했다.

강진군 농구장은 조성한 지가 20년 이상돼 바닥면이 일부 훼손되고 농구대가 낡아 농구를 즐기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군은 올해 1월부터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개 코트 면적 528㎡(17.6m x 30m)에 이르는 농구장 보수공사를 실시했다. 바닥재는 기존 우레탄 소재에서 내구성이 강화되고 미끄럼 방지에 탁월한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했고, 농구대는 생활체육 용에 적합한 고정식 농구대를 설치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농구장 보수공사를 통해 강진군민이 더 나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더 많은 강진군종합운동장의 여러 운동시설을 집중화하여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진군농구협회 서영태 회장은 "상설 농구장을 이용할 수 있게 돼 농구인들의 실력향상과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1004섬 신안, 수공예 동박새 목각 하남시에 특별 전시



신안군은 지난해 하남시와 환경보전 교류 및 생태관광 활성화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이후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조류목각과

표본을 서로 교류해 전시하기로 하였다

신안군과 하남시는 지난 2019년 환경보전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하고 행정, 문화, 관광,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다짐하였다. 또한 지자체 간 우수시책과 주민 소득사업 지원, 정보 등을 교환하고 민간단체 교류 활동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신안군은 관내 대부분 섬에서 서식하는 대표적인 동박새 목각 7점을 하남시 유니온타워 1층 홍보관에 전시하였다. 동박새는 겨울철 동백꽃 꿀을 먹는데 운송하고 울음소리 또한 고우며 섬과 친숙한 새이다. 동박새 목각은 실물과

똑같은 형태로 제작했다.

또한 하남시는 남한강변의 환경보전과 교육을 위해 제작한 조류표본 32종 43점을 신안 철새박물관에 전시해 확산도를 찾는 관람객과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5월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신안군은 관내 전역(3,238km²)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며, 특히 국내에서 조류의 종다양성이 가장 우수한 지역이다. 이러한 신안의 생태환경 보전 일환으로 지난 2015년 신안 확산도에 개관한 철새박물관은 생물자원 전시와 교육, 체험형 관광객 유치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신안군 세계유산과장은 "환경보전, 생태관광 활성화, 청소년 교류 등을 협력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평군보건소, 2020 업무연찬 실시

함평군보건소는 지난 20일 보건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100여 명을 초청해 2020년도 업무연찬을 실시했다.

정명희 보건소장 주재로 열린 이날 연찬회에서는 '자녀안심 부모 건강 알리미' 등 올해 추진할 주요보건사업 내용을 소개하고 다가올 4·15 총선과 군수 보궐선거

에서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지 등을 교육했다.

특히 최근 지역 감염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 의심환자 발생 시 대응요령 등의 내용까지 상세히 전달하면서 지역사회 유입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함평=김광준 기자

목포시, 2020년 전기 자동차 및 이륜차 보급 추진

목포시가 2020년 전기 자동차 및 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전기차 보급대수는 총 84대로 승용차(초소형포함) 60대, 화물차(소형) 4대, 이륜차 20대이며, 보조금은 최대 전기승용차 1,540만원(초소형 640만원),

전기화물차 2,520만원, 전기이륜차 3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개인의 경우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목포시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접수일 이전에 사업

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시에 등록되어 있으면 된다.

구매보조금 지원 희망자는 먼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 판매점의 안내에 따라 '저공해차 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

으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기간은 오는 24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접수 후 결격사유가 없어 지원 자격을 부여받은 신청자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인 조건으로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 목포=박정수 기자

장흥군 부산면, 군의원과 소통 간담회 개최

장흥군 부산면행정복지센터는 지난21일 장흥군의회 의원을 초청해 부산면행정복지센터에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소통 간담회는 북부권역 군의회 의원과 부산면장, 번영회장, 이장자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부산면 기관사회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면의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나눴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천환경정비 사업에 대한 면민의 의견을 보고하는 한편, 부산면 발전방향에 대한 폭넓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장흥=위지훈 기자

MEGABOX 광주첨단점

1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2관	정직한 후보
3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4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5관	정직한 후보
6관	클로젯
7관	수퍼 소닉, 1917
8관	작은 아씨들
9관	살인의 추억, 설국열차, 수퍼 소닉, 남산의 부장들
10관	정직한 후보

문의전화 1544-007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엠코로 35(쌍암동)

CGV* 광주하남점

1관	하이, 잭시, 클로젯, 손더쉽 더 무비-꼬마 외계인 롤라!
2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정직한 후보
3관	정직한 후보
4관	1917
5관	작은 아씨들, 클로젯
6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문의전화 1544-11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400번길 30 테라스 56 피크닉몰 2층